

30조 사들인 개미들의 ‘三電 순애보’… 박스권 주가는 ‘글쎄’

<올해>

개미운동의 현주소

〈中〉 개미 순매수 종목은

올해 들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가장 많이 팔아 치운 종목은 바이오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타났다. 개미들의 올 투자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절반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미들이 판 순매도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였다. 전 거래일(9일)까지 25조441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2위 삼성전자 우선주와는 20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하반기와 역전된 양상이다. 당시 개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38조원 어치 순매수한 반면 보통주는 12조원 사들이는데 그쳤다.

◆삼전 사랑 여전…주기회복 전망 엇갈려
수급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해 11월까지 최선호주 자리를 지켰으나 12월 순매수액 2조1467억원을 기록하며 보통주(2조2658억원)에 뒤지기 시작했다.

차이는 연초부터 급격히 벌어졌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보통주 순매수액은

삼전 25.4조+삼전우선주 4.4조 순매수 종목 1·2위 모두 삼성전자 실적 축포에도 주가 7만원선 횡보 증권가선 주가 회복 전망 엇갈려

카카오·네이버 주가 상승 돋보여
바이오 대형주 팔때 외인은 사들여



10조1567억원으로 우선주(1조9028억원)를 8조원 이상 앞질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하며 파운드리 선단공정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 예측이 보통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다만 최근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개미들이 기대했던 ‘10만 전자’는 아직 요원하다. 8만원 초반선에서 횡보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주말 7만9400원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4.5%, 삼성전자 우선

〈올〉 개인투자자 순매수 20위 수익률

순위	종목명	순매수액	수익률
1	삼성전자	25조4140억원	-4.5%
2	삼성전자우	4조4794억원	-3.9%
3	SK하이닉스	3조3170억원	-5.3%
4	현대모비스	2조9179억원	-9.9%
5	카카오	2조1087억원	27.4%
6	현대차	1조9313억원	-4.8%
7	LG전자	1조6371억원	4.7%
8	기아	1조3222억원	5.0%
9	SK이노베이션	1조1257억원	9.3%
10	삼성전기	1조1164억원	1.1%
11	SK바이오팜	1조231억원	-2.1%
12	셀트리온	1조141억원	-14.7%
13	삼성SDI	9104억원	15.0%
14	NAVER	8742억원	6.5%
15	금호석유	8203억원	-8.2%
16	한국전력	8193억원	1.7%
17	KT&G	6631억원	1.3%
18	롯데케미칼	5494억원	-3.3%
19	POSCO	4731억원	1.4%
20	하이브	4377억원	8.6%

전 거래일(9일) 기준. /한국거래소

주는 3.9% 떨어졌다.

시장에선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지난 6번의 실적 발표 중 4번이 발표 직후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주가가 지난 실적보단 6~12개월 이후의 업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나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새로운

실적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는 부진하지만 실적 개선과 밸류에 이션 매력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車 주춤하는 사이 IT·엔터주 ↑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조정 받는 사이 정보기술(IT)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떠올랐다.

IT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27.4%, 6.5%로 상승했다. 커머스, 콘텐츠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한 회사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4377억원)는 8.6%의 오름세를 보였다. 안전아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계속 컴백하고,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오프라인 공연이 확대돼 3분기 이후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주식은 SK하이닉스(3조 3170억원), 현대모비스(2조9179억원), 현대차(1조9313억원)였다. 주가는 각각 5.3%, 9.9%, 4.8%씩 하락했다.

◆바이오·경기민감주 많이 팔아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6159억원)로 조사됐다. 지난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을 무시한 오름세를 보여 왔던 바이오

주는 올해 들어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뚜렷한 개발성과가 없는 상황에 더해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성장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바이오 대형주를 매도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이 매도한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지난주 기관투자자는 멜타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집중 매수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멜타 변이와의 싸움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백신, 계속 수요가 생기는 진단키트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의 순매도 상위권에는 SK텔레콤(5977억원), 에스오일(5805억원), 신한지주(3891억원), 현대건설(316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유, 건설, 금융, 통신 등 대체로 경기민감주가 순위권에 포진했다. 리사이클(경기재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개미들에게 소외된 모습이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하락하며 경기민감주와 가치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반면 성장주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민감주와 IT업종이 실적 전망치 상승을 이끄는 구도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metroseoul.co.kr

RBC비율 ‘우수수’… 보험사, 자본확충 총력

IFRS17 도입 앞두고 대비 안간힘 3월 말 RBC비율 19.0%p 떨어져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잇따라

주요 보험사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458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금 납입이 완료된 것이다. 이를 통해 푸본현대생명의 최대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은 지난 2015년 이후 한국 시장에 총 1조2700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속적인 총자산 성장과 영업확대에 따른 적정 지급여력(RBC) 비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캐롯손보도 자본확충에 나섰다. 캐롯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 규모를 유치했다. 캐롯손보는 지난 2019년 한화손보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같은 대형 투자사들이 합작해 설립한 디지털손보사다.

이번 1000억원 유상증자는 전액 기존 주주들로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제3자배정방식을 통해 10%의 지분을 신규 참여했다. 1대 주주인 한화손보는 기존 지분율을 해당분 외에 추가 100억원을 더해 총 61.6%를 출자했다.

〈국내 생·손보사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현황〉

푸본현대생명	45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캐롯손해보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미래에셋생명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현대해상	3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DB손보	499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이를 통해 캐롯손보의 지분율은 한화손보 56.6%, SK텔레콤 10%, 현대자동차 3.5%, 알토스벤처스 9.9%, 스틱인베스트먼트 15%, 티맵모빌리티 5%(총 발행 주식 수 기준)다.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바람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ESG인증을 받은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실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약 14%포인트(p) 정도의 RBC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현대해상도 3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현대해상은 이번 사채발행은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으로 조달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채발행을 통해 발행대금이 납입되면 현대해상의 RBC비율은 190.1%에서 201.7%로 늘어날 예정이다.

DB손보도 최근 499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을 진행했다.

이처럼 다수의 보험사들이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데는 RBC비율 관리를 비롯해 IFRS17에 대

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말 보험사의 RBC비율은 256.0%로 지난 12월 말 275.0%과 비교하면 19.0%p 줄어 들었다. 보험사의 경우 297.3%에서 273.2%로 24.1%p 하락했다. 손보사도 234.0%에서 224.8%로 9.2%p 줄었다.

더불어 오는 2023년부터 현행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도 보험사에 도입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전산뿐 아니라 회계·계리 분야의 전문인력과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IFRS17을 전면 도입하기로 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더 큰 모습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이 여유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보험사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IFRS17 도입 기간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여유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고객유치 과열, 무분별한 금리경쟁 ‘우려’

» 1면 ‘금융권, 뜨거운 감자’ 서 계속

저축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무분별한 금리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 고 우려한다. 금리의 높고 낮음은 대출 시 차주의 리스크를 감안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 경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사이트와 대환대출을 비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르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층의 경우 한도, 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폭이 넓은 만큼 무분별한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시간을 놓고도 의견이 나온다. 은행들은 보안상 이유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핀테크 측 요구가 쉽지 않다는 금융권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조건을 기준 금융사들이 정하고, 논란이 되는 수수료율도 금융권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은행권, 12일 제2금융권을 만난 데 이어 오는 13일 빅테크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文 “짧고 굵게 끝내야 일상복귀 앞당겨”

» 1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서 계속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이럴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빙틈없이 가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